



## LA한국교육원, 전미지역 초·중·고교 한국어반 교사 연수 성료

-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12월 7일과 14일에 온라인으로 연수 진행
- 늘어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어 담당 교사의 역량 개발 지원

- LA한국교육원(원장 강전훈)은 12월 7일(토), 12월 14일(토) 양일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전미 초·중·고교 한국어반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
  - 전미에서는 2023년말 기준, 217개 초·중·고교에서 2만5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, 매년 한국어교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들에게 최신 교수법을 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
- 올해 정규학교 한국어반 교사 연수는 한국문화·역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,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 자료 활용법, 효과적인 말하기·쓰기 통합 교수법, 한국어반 신설 및 유지 전략, 우수 한국어반 운영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.
- 연수에 참석한 글렌데일 교육구 마크 케펠 초등학교의 오세아 교사는, “이번 연수를 통해 국어 교수법의 최신 경향(트렌드)을 파악할 수 있었고, 새롭게 배운 인공지능(AI) 디자인 툴을 활용해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”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- 이번 연수 운영에 참여한 김성순 국제한국어교육자재단(IKEN) 회장은, “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어 교사들에게 가장 유용한 내용으로 연수 커리큘럼을 엄선했다”고 말하고, “기존 교사들과 예비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수법뿐만 아니라 교실 운영 및 학생·학부모와의 관계 수립 경험, 새로운 교육트렌드 등을 공유하였다”고 밝혔습니다.

-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은, “이번 연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문화적 이해를 통한 한국어 능력향상 교수법과 AI 기술 활용법이 미래 교육 환경에 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 고 말하고 “늘어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어반 교사 역량 개발과 소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 고 밝혔습니다.

붙임:사진 3부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  
(213-386-3112) Homepage: [www.kecla.org](http://www.kecla.org)
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	담당자	이상범 부원장 (213-386-3112)
	담당자	

사진 1: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 환영사



사진 2:참가자 단체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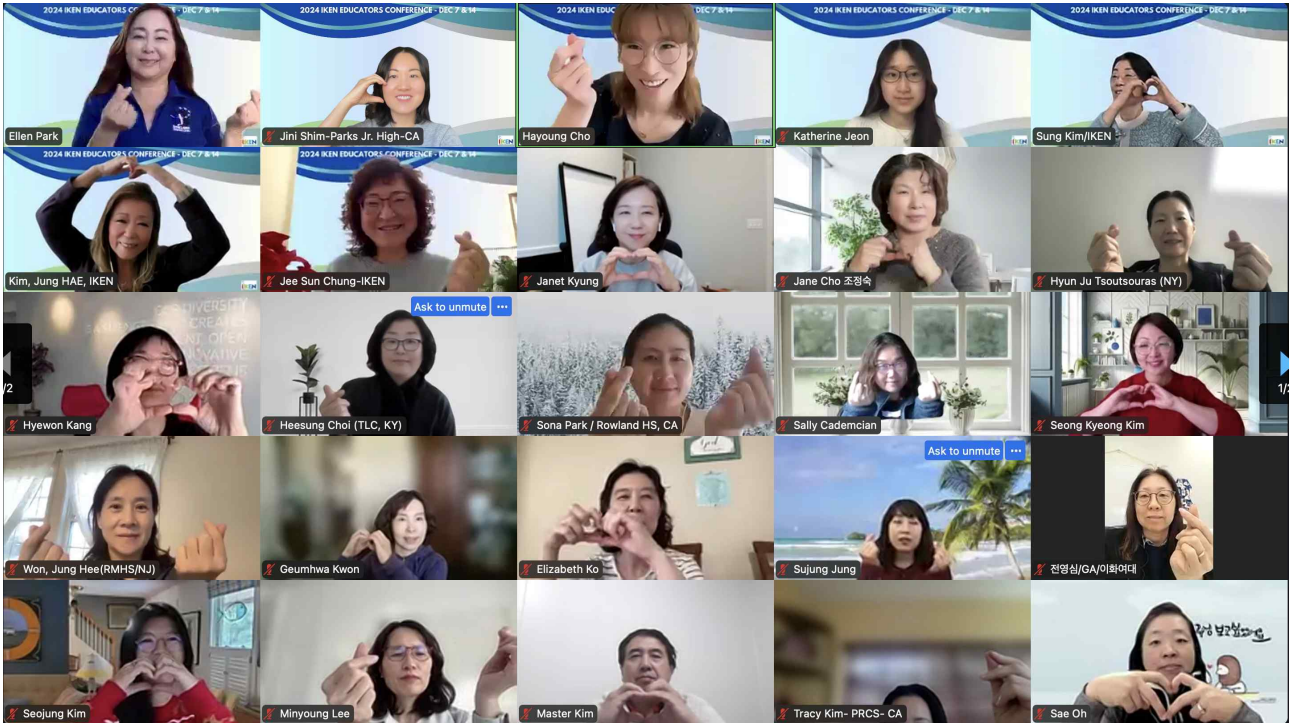


사진 3: 한국어 학습자 고민 이해 강연

